

투데이 칼럼

출발선은 비고 종착선은 미어터지는 전북, 폐교 공간의 상생매칭

올해 전북 교육 현장이 마주한 가장 시린 숫자는 '28'과 '2만'이다. 도내 초·중·고교 중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한 학교가 무려 28개교에 달하는 반면, 65세 이상 노장년층 인구는 매년 2만 명 인파씩 폭발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아이들의 출발선은 텅 비어가는데 생의 종착선은 미어터지는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구조가 전북 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불균형의 한복판에 전북 농산어촌의 '학교 소멸'이라는 시한폭탄이 자리하고 있다.



이장호
전 국립군산대학교 총장

도교육청의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뜯어보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현재 전교생 9명 이하로 통폐합 필수 검토 단계에 진입한 소규모 학교는 41개교다. 이 추세라면 4년 뒤인 2029년 71개교를 넘어, 초등 전체 학생 수 5만 명 선이 무너지는 2030년에는 무려 80개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개 안팎, 도합 50개에 달하는 우리 고향의 학교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확정된 시간표이다. 김제, 익산, 정읍, 남원 등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미 전교생을 다 합쳐도 한 자릿수에 불과해 정상적인 토론 수업이나 사회적 발달 교육이 불가능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상황이 이토록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대책은 한가하기만 했다. 한쪽에서는 '지역소멸 위기대응특위' 같은 행정 위원회를 신설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른 한쪽에서

는 기존에 해오던 '농촌유학'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적 구호만 되풀이했다. 매년 수만 명씩 늘어가는 도민들의 호를 막지 못하면서, 그저 "작은 학교를 무조건 지키겠다"고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만을 의식한 눈속임이자 무책임의 소치다. 이제는 학교를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 붕괴하는 교육 현장과 급증하는 고령 인구를 연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매년 늘어나는 2만 명의 노장년층 은퇴자들을 학교 뜰에 안아주고, 잠깐 무성해지는 운동장을 '세대 통합형 복합 스포츠·치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상생 모델이 정교한 답안지가 될 수 있다. 농산어촌 학교가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때, 지역 어르신들이 등하굣길 안전을 돌보며 따뜻한 정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 도내 곳곳에 생겨나는 단순 여가용 파크골프장과 달리, 학교 마당에 조성될 스포츠 공간은 '교육과 돌봄'이 결합한 세대 통합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파크골

프나 그라운드골프 같은 미니 스포츠가 세대 통합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신체적 격차와 상관없이 조부모와 손자 세대가 동등한 규칙 아래 함께 경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을 전문적인 스포츠 심판 및 경기 지도 요원으로 교육·양성하여 자부심 넘치는 전문직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긍정적인 관정과 매너 아래서 아이들이 규칙을 배우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단정하게 유니폼을 입은 동네 어르신 심판의 리더 속에서 초록 잔디를 밟으며 에절을 익히는 정서적 안정감과 행동 제어 효과를 발휘한다. 나아가 종목의 단조로움을 넘어 '세대 통합 스포츠'의 범위를 세밀하게 확장해야 한다. 어르신들의 숙련된 기술과 아이들의 활력이 시너지를 내는 '세대 공감 전통 국궁', 정교한 집중력을 요하는 '한궁(체형형 랭킹 스포츠)',

그리고 남녀노소 함께 팀을 이룰 수 있는 '셔플보드'나 '뉴스포츠' 종목들을 학교 체육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스포츠와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해야 한다. 노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기술 지체(指導)가 되고, 아이들의 생기는 노년에게 삶의 활력을 돌려주는 상호 호혜적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현행 공유재산법이나 교육법상의 경직된 학교 부지 용도 제한 조항은 이러한 혁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부여한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북특별법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학교 및 폐교 부지를 '학교·마을 상생 복합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책임지는 '교내 상생 스포츠 안전보험'과 퇴직 행정 인력 중심의 전담 매니저 제도를 융합하는 제도적 마스터키를 쥐어주어야 한다. 이 장치 위에서 비어가는 교실은 교사·학생의 '마을치유 숲 교실'이자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인지 건강 교육장'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인구 절벽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그러나 그 흐름 속에서 다가갈 비극을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역의 새로운 생존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육 수장의 역할이다. 향후 4년간 밀려올 폐교의 파도 앞에서 언제까지 구태 의연한 대응만 할 것인가. 전북 교육의 생존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사설

임종수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작곡가이자 가수인 임종수 씨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출신이다. 순창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익산에서 남성중(8회)·고(11회)를 다녔다. 그는 1942년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중 2때 형이 살기지로 발령이 났다. 살기지에서 황등역까지 산을 세습이 넘어 이십리길을 걸어간 뒤, 이리역(현 익산역)까지 통학열차를 타야 했다. 늘 시간에 쫓겼다.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그 때 철길 옆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가 보였다. '고향역'은 이 때부터 탄생했다. 원래 그는 가수가 꿈이었다. 남성중 1학년 때 전교생 장기자랑을 했다. 임종수는 제일 먼저 단상에 올라가 명곡환 선생의 '백야야 우지마라'를 간드러지게 불러

강당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는 단순한 사부(惡婦)곡이 아니다. '어머니와 아내'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과 가슴 사리도록 꼬마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있다. 그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수영, 1976년), '대동강 편지' (나훈아, 1981년), '육경이' (태진아, 1989년), '부초' (박윤경, 1991년),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조, 1998년), '모르리 · 빈지게' (남진, 2003년), '사랑이 남아있을 때' (문희유, 2006년) 등 주옥같은 명곡들을 만들었다. 그에게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기념비가 고향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난했던 기억만이 가득 남아 있는 곳이지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의 정겨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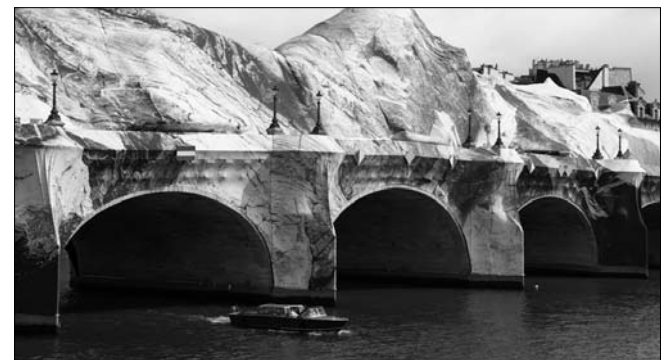
임병식 국가유산위원회 위원

전북 출신인 임병식 순천향대 초빙교수가 최근 공식 출범한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유산청은 5월 15일 국가유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임 교수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13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임 위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국회 부대변인과 국회의장 정부비서관 등을 지냈다.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국가유산청 정책자문위원, 육군 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자문 분야에서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위원회는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유산의 지정·해제, 현상 변경, 역사

문화 환경 보호, 매장 유산 발굴 및 보호, 세계유산 등재 등 국가유산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심의와 자문 안전을 전담해 다루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통합 개편을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와 활용은 물론, 조사·심의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위원 비율을 기존 평균 50%에서 58%(78명)로 높였으며, 수도권 위원 43%·비수도권 위원 57%로 구성해 지역 현상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최초로 출범하는 국가유산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국가유산 보존·관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퐁뇌프 동굴' 지나는 선박



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퐁뇌프 다리에 설치된 설치 작품 '퐁뇌프 동굴'(La Caverne du Pont Neuf)이 공개되고 있다.

태풍 '장미' 비바람, 우산으로 막아보는 도쿄 시민



3일 일본 도쿄에서 한 시민이 제6호 태풍 '장미'의 영향으로 강하게 몰아치는 비바람을 우산으로 막으며 길을 가고 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외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